

대만, 석유화학제품 생산 호조

에틸렌 등 대부분 두자리수 증가 ... PO 관세율 인상 검토

94년 대만의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PVC와 가소제 DOP를 제외한 각 제품들이 강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렌은 아시아시장의 호황을 반영, 93년대비 19.8% 증가한 88만9000톤이었고, BTX·HDPE·PP·PS·ABS수지 등 대형제품은 두자리수이상 대폭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석유화학제품 생산현황(1994) (단위 : 1000M/T, %)			
구 분	1993	1994	증감률
에틸렌	742	889	19.8
프로필렌	418	532	27.3
부타디엔	90	127	41.1
벤젠	273	422	54.6
톨루엔	12	39	225.0
자일렌	228	470	106.1
LDPE	217	224	3.2
HDPE	153	187	22.2
PP	235	341	45.1
PVC	1,078	1,025	▽4.9
SM	370	419	13.2
PS	532	601	13.0
ABS	637	735	15.4
SBR	67	88	31.3
메탄올	13	24	84.6
EG	161	179	11.2
카프로락탐	75	104	38.7
AN	144	153	6.3
PTA	1,633	1,793	9.8
PA	94	96	2.1
DOP	222	205	▽7.7

대만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90만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제5NCC 가동으로 적정 생산량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93년 에틸렌 수입량 18만톤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 여전히 수입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S·ABS 등 스티렌계 수지는 奇美實業의 증설에 따라 각각 13%, 15.4% 증가했다.

PTA는 93년 163만톤에 비해 25% 증가했으나, 증설진행이 느려 94년은 9.8% 증가한 179만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자일렌이 대폭 증가했고, 벤젠 56.4% 증가한 42만톤, HDPE 22.2% 증가한 18만7000톤, PP 45.1% 증가한 34만톤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만 정부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폴리올레핀 수입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수입관세인상 대상은 주로 한국의 PE와 PP 등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폴리올레핀 생산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고 있다.

대만의 PE가격은 톤당 920달러, PP가격은 톤당 980~1050달러로 국제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생산능력만으로도 현재 연간 43만톤에 이르고 있는 내수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내수시장 보호 차원에서도 한국산 PE와 PP에 대해 규제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만 석유화학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LDPE의 경우 한국의 대만 수출량은 93년11월까지 3만4000톤에 이르렀으나 94년 같은 기간 동안에는 단지 3780톤에 그쳐 94년들어 한국산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5/5/15>